



당신, 그곳에 있어주세요 자연이 전하는 깊은 위로

김진수 포도갤러리 개인전 제주 자연서 만났던 감정들 장지에 먹·분채·금분 이용 전통채색에 현대 이미지

현오와 차별이 가라앉은 자리에 위로라는 꽃이 피어나야 할 시절이다. 기세등등하게 활개치는 코로나19 앞에서 새삼 '우리들'이 그리워지는 때다.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포도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포도갤러리에서 준비한 김진수 개인전은 제주 자연을 매개로 빛어낸 그림들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따스한 기운을 나눠 줄 듯 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제주대 미술학부와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진수 작가는 제주우수청년작가 선정, 두 차례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등 그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그동안 호주를 포함 10회에 걸쳐 개인전을 가졌다.

그는 이번엔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시다(You were there)'란 제목 아래 20점 가까이 선보인다. 제주 자연에서 만났던 어떠한 '당신'과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한국 전통채색 기법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결합



김진수의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시다(You were there)'.

킨 그의 작품 속에서 담백하게 절제된 선으로 나뉜 화면은 제주의 오름과 바다를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두고 한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들어낸 장지에 먹과 분채, 금분을 더하며 깊은 색감으로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

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장지에 아교와 물, 색 분말을 섞어 수십 번 반복하는 채색 작업은 특히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전시는 3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계속된다. 갤러리는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개방한다. 전선히기자

詩(시)로 읽는 4·3 (49)

4·3별곡

윤봉택

죽어 있음이 편안하였던 시절
이제 다시 살아 있음이
죄가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침묵 후에 말하려 하는 것은
그날의 고자질, 아픔, 총칼, 죽창
이 아닙니다
모비명 없이 시방도 저승길 가
고 계실
나 설운님들에게 이승의 우리

이름으로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만 사천육백 일 동안 비겁하
었던 거짓을
참회하려 함입니다
오 그리하여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러 합니다.

시인은 지난 시절 말하지 못한 금기(禁忌)의 시간을 참회한다. 4·3은 제주만의 역사로 간혀있다. '총칼' '죽창'으로 상징되는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4·3의 역사가 있던 후 '일만 사천육백 일 동안' 참아 왔던 아픔의 역사를 말하지 못했던 거짓을 참회하는 행동이 된다. 시인은 참회라는 형식의 내적 성찰을 통해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삶의 공동체 틀에서 살아가고 싶음을 이야기한다. 역사적 아픔을 딛고 사랑으로 기인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 제주인의 정신이며 제주문학에 나타나는 작가정신이다. 원래 금기는 종교적 관습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접촉이나 언급이 금지되는 일이다. 금지되는 것에는 행동과 말 양쪽이 포함된다. 터부(taboo, tabu)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구기(拘忌)'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민속 현장에서는 '가리는 일', '금하는 일' 등으로 불

리고 있으며, 더러는 '지키는 일', '삼가는 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금기가 언제나 기피나 회피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정한 짓을 해서 안 될 경우 부정에 빠지지 않게 목욕제하는 것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을 경우, 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될 어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일이 우리의 민속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지킴'이나 '가림'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속신앙에서 문제되는 '깨끗함'과 '더러움', '정정(淸淨)'과 '부정'의 이원론적 대립을 두고 볼 때, 금기는 더러움이나 오염 또는 부정에 걸리지 않고, 청정·맑음·깨끗함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종교적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금기이다. 부정을 타는 것은 오염이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도서관 닫으니 스마트도서관?... 제주는 휴관 중

공공도서관 이용 중지 불편에 문체부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6곳 중 5곳 코로나 여파 휴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휴관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이용을 빌려 읽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안내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방역 조치의 하나로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휴관하고 있고 제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주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기한없이 임시 휴관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휴관했지만 책을 빌려 읽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휴관 동안 국민들이 전국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자동화기기에 400~

600권의 도서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 시설이다. 제주에는 제주도 지역에 6곳이 분포했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조천읍사무소 정문 입구, 일도지구 농협 하나마트, 제주대병원, 일도1동복지센터, 애월 하나마트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6곳 중 5곳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사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지난 2일부터 휴관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애월농협 하나마트 매장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스마트도서관. 전선히기자

안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탐라도서관의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에 휴관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지만 매일 기기 소독을 하면서 중지 없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15권 내외의 도서가 대출된다"고 말했다. 전선히기자



지난 3일 미사를 중단한 천주교제주교구 제주중앙성당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예배 등 종교 모임 최대한 자제해달라"

제주도 네 번째 협조 공문 212개 종교시설 방역 신청

제주도가 올해로 네 번째 종교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는 4일 제주도내 각 종교계 대표들에게 "미사·예배·법회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연기해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제주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재차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미사, 예배, 법회 등을 중단한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4일 기준 방역을 신청한 종교 시설은 전체 788개 중에서 212개소로 집계됐다. 개신교회 139개소, 사찰 38개소, 성당 27개소 등이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은 "방역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3월 15일까지는 제주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히기자

"3·8여성의 날...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12개 연대단체 선언문 기념식 대신 온라인 행동

3·8세계여성의날 112주년 기념 제주지역 여성대회가 온라인 행동으로 대체된다. 제주여성회 등 12개 연대단체는 4일 "3월 8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탐라광장에서 3·8세계여성의날 기념식과 거리행진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SNS 활용 카드뉴스 게시 등으로 의미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성대회 슬로건은 '페미니

스트 정치, 바로 지금! 나도 정치한다!'로 정했다. 제주는 민선이 시작된 이후 단 한명도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했고 여성 도지사 0명, 여성 도의원 비율 18.6%, 여성 이장 2.3%, 여성 어촌계장 23.5% 등 여성이 저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개 연대단체는 '제주여성 선언문'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외침이 아닌 정책과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이르렀다"며 "우리 모두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히기자 sunny@ihalla.com

승진 & 영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 경 속
(신성여고 22회)

서귀포중학교 교장



한 경 희
(신성여고 23회)

창천초등학교 교장



정 호 경
(신성여고 25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 순 아
(신성여고 25회)

승진 및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현희순 회장과 동문 일동